

### 4월의 기도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57편 2절)



1.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 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 DCEM 성회안내

2015년 5월 6일에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특별축복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이,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 조중숙목사, 안희순, 원소선, 이형춘,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 예수를 바라보자

스위스의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힐티는 현대인이 고난을 무서워하는 원인에 대해 “현대인의 특징인 고난공포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현대 생활은 모든 환경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으며,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의 삶에 위축되어 세상의 모든 것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문제의 해답을 주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진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하나님만 있을 뿐,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기록합니다. ‘한 두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을 다스리고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너희는 모든 것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써 마음속에서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평안을 가지면 그 평안이 몸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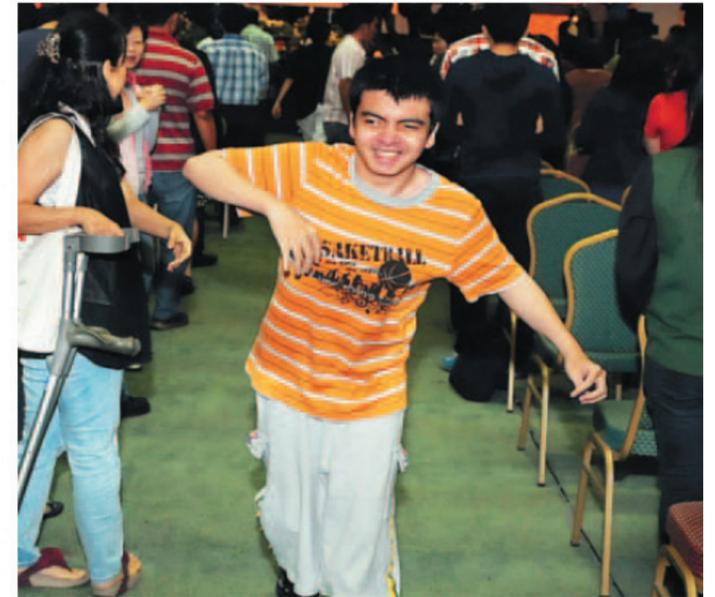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말레이시아성회 영성 기적의 현장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 일하신다”  
 반세기 넘게 체험한 교회성장 병 고침 등 성령의 역사 전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에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말레이시아 수방 자야에 위치한 FGTC(Full Gospel Tabernacle Church)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말레이시아성회는 현지 크리스천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기적의 현장이었다. 이번 성회에도 DCEM 사무총장이며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이기도 한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가 총재 조용기 목사와 함께하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4월 9일 ECCM(말레이시아기독교연합회)와 4차원 영성글로벌포럼, 그리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함께 주최한 이번 성회에서 ‘4차원의 영성과 기적’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17세 때 폐결핵을 앓으면서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기적과 천막교회 개척에서 세계최대교회로의 성장, 병자들의 병 고침,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체험했던 좋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간증했다.

간증이 이어질 때 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안드레의 꿈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선포하며 목회자들과 함께 신유기도를 했다. 기도의 함성이 커지기 시작한 그 때였다. 한 아이가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보조기구를 들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보조기구를 집어 던지고 뛰며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간증했다. 기적의 주인공 줄리안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 18살이 된 지금까지도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 걷지 못하는 아이였다. 그러나 이날 성회에서 조용기 목



사의 신유기도 시간에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강한 힘이 자신의 다리에 힘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처음으로 뛰는 모습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한편 강대상 우측편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피터도 휠체어에서 별떡 일어나 감사의 고백을 쏟아냈다. 평소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그는 두통도 심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휠체어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회장에는 자신이 체험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참석자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고, 죄의 길과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의학박사 ‘하루야마 시게오’는 한국인 3세로 ‘뇌내 혁명’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우리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화학물질로 분비되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병을 일으키고, 반대로 마음이 기쁠 때는 ‘베타-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복돋워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육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 1.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속에 성전삼고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믿음을 갖고, 같이 선언을 하며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성령이 저보고 “함께 가자!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장님이 눈을 떴다고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건 좀 너무한데요?’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함께 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오늘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왔는데 눈을 떴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책집질까 겁이 나서 “지금 당장은 낮지 않아도 집에 가다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깐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한쪽 눈을 사고로 심히 다치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자 다른 눈도 따라서 시력을 잃고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제 집회 소식을 듣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신유 기도를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니 혹시 하는 마음에 눈을 떠 보았답니다. 그때부터 전등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찬송가 구절이 보이더군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날도 고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을 피하고, 주 날개 밑에 거하며, 밤에 놀람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흑암 중에 나타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피난처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피하는 곳이고, 요새는 철벽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원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의뢰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정결하게 회개했는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 받는 모습을 꿈꿔 보고, 그리고 응답 받았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큰 목소리로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로써 들리도록 기도하기도 하지만 고요하게 묵상기도를 할 때도 많습니다. 손은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성령의 4차원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3.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좋은 일이 있거든 그 좋은 일로 인하여 곤장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실컷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생명의 샘이 되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생수가 항상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4차원 영성 말레이시아대성회

## 4차원영성, 말레이시아 영적세계 지각변동 예고



이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4차원 영성 말레이시아대성회를 주최한 ECCM 회장이자 성회가 열린 FGTC 담임목사이기도 한 유홍성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성회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변화시켜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회가 끝난 후 유홍성 목사는 많은 성도들의 쏟아지는 간증에 “너무나 행복하다. 지금 말레이시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겨울이 없다.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여름과 같은 따뜻한 기후를 가진 복 받은 나라이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1년 내내 겨울이다. 말레이시아는 3000만 인구 중 60%가 무슬림이며 종교의 자유가 있기는 하나 무슬림이 우대받고 일반 법보다 샤리아법이 우선인 전형적인 이슬람국가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절대 말레이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오순절대회에서 조용기 목사가 전한 강한 성령의 메시지는 현지 크리스천과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큰 울림이 됐다. 이번 4차원영성 말레이시아대성회는 그 울림을 넘어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동행함은 물론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체험케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말레이시아의 영적 세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 조용기 목사, 말레이시아 정계 및 교계 지도자들과 환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4월 8일 오후 말레이시아 그랜드임페리얼 식당에서 아이드리스 야라 종교성장관, 폴 로우 센 칸 부패방지장관, 하나에 수방도지사, 테레사 록 국회의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기독교연합회장(ECCM) 유홍성 목사, 갈보리채플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 등 현지 정부관계자 및 교계지도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자리를 마련한 유홍성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말레이시

아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조용기 목사는 유홍성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성령의 능력과 한국의 교회성장 등에 대해 자신의 목회경험과 간증을 통해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날 참석한 말레이시아 교계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선교 경험들을 공유하고 성령과 동행해 말레이시아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